

대한민국 포경수술 급감

김대식 구성에 방명걸

초록

배경: 수시로 변하고 있는 포경 수술의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지난 십년간 한국의 포경 수술 비율 변화를 조사하고 이 변화에 대한 근본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2009에서 2011년까지, 3296명의 0-64세 사이의 한국 남성들 (또는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포경수술 상태와 포경수술을 받았을 때의 나이, 포경수술에 관한 정보 수준을 물었다. 우리는 연구주제가 민감한 질문임을 고려하여 비확률적 표본추출을 사용하였다.

결과: 현재 14-29세의 한국 남성의 연령 표준 포경 비율은 75.8%로 밝혀졌다. 2002년의 선행 연구에서는 같은 나이 그룹의 비율이 86.3%였다. 흥미로운 점은 14-16세 남성의 포경수술 비율이 56.4%로서 10년 전 같은 나이 그룹의 88.4% 보다 훨씬 낮아진 점이다. 게다가 10년 전에 95.2%의 매우 높은 포경수술 비율을 보인 17-19세 나이 그룹이 이제는 74.4%로 감소되었다. 흥미롭게도 지난 십년 간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 비율은 단지 25.2%였다. 즉 대부분의 현재 포경된 남성들은 2002년 전에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며, 이는 지난 십년간의 실제적인 변화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측한 내용과 일치하게, 2002년의 조사는 지난 십년간 대부분의 포경된 남성(75.2%)이 그 시점 전에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4-16세의 주요 나이 그룹에 초점을 맞추면, 이 감소가 보여주는 것은 한국 남성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비감소 경우와 관련하여 지난 십년 간 대략 백만 건의 포경수술이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감소는 인터넷, 신문, 강연, 책, 텔레비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 포경수술 받은 인구 내에서는 환자와 그들 부모 모두 구두로 얻어진 정보 외에는 포경수술에 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었다. 반면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인구 사이에서는 포경수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 훨씬 크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배경

남성 포경수술은 주로 종교적인 이유로 특히 이슬람교도나 유대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포경수술은 영어권 국가에서 실천되었으나 현재 소년들이 일상적으로 포경수술을 받는 영어권 나라는 미국뿐이다.

우리는 최근 한국이 90%보다 더 높은 포경수술 비율[1,2]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이웃들 중에서 대부분의 소년들이 포경 수술을 받는 유일한 나라이다. 사실 강한 유교와 불교 전통을 가진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높은 비율로 포경 수술을 하지 않는다. 사실 포경수술은 한국의 오래되고 강한 전통인, 몸을 부모로부터 받은 선물로 생각하여 보존하려는 생각에 반하는 것이다. 공자는 우리의 몸, 털, 피부를 부모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해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하였다[신체발부는 수지부모: 3]. 기독교는 2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포경수술과 관련된 적이 없다. 오히려 신약 성서 갈라디아서의 성 바울은 포경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최근 기독교와 가톨릭교 인구 증가로는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슬람교도나 유대교도

는 사실상 거의 없다. 따라서 모든 포경수술은 의학적인 이유로 행해진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리고 이 관점은 미국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 받았고, 한국이 일본에게 해방되고 미군정의 지배가 시작된 1945년에는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결론들은 선행 연구에서 나왔고[2], 실상 1945년 전에는 포경수술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대량의 의학적 포경수술이 HIV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촉진되고 실천되어 왔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서는 부족의 포경수술이 의학적 포경수술로 전환되었다[4]. 르완다에서는 전통적으로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 국가가 대량의 의학적 포경수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5].

포경수술에 관한 다양한 국가적 태도의 관점에서 미국에서의 최근 포경수술 감소[6]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그 외 나라의 가파른 의학적 포경수술 증가[4,5,7]의 관점에서라도 한국에서의 포경수술 비율이 지난 십년 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방법

우리는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들이나 그들 아들의 포경수술 상황에 관한 팝업 질문표에 바로 연결되어진 연구대상자들을 모집하였다. 우리는 또한 인터뷰 (총 응답자의 5.4%)를 통한 오프라인 방법도 사용하였는데, 이는 2002년에 조사된 우리의 앞선 연구에서 기술된 대로 저자들이 실제 인터뷰를 한 것이다.[2] 질문들은 단순화하여 오로지 포경수술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는 최대한 많은 반응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 포경수술과 관련된 지난 연구들에서 포경수술 상황이 종교적, 교육적, 경제적이거나 지리적인 배경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점에서도 인터넷 조사의 정당성이 찾아진다. [1,2] 질문표들은 추가 파일1에 포함된다. 이 연구는 0-29세의 3,296명의 남성들을 포함한다. 18세 이하 아이들의 포경수술 상황은 그들 부모에 의해 제공되었다. (Table 1). 이번 연구에서 부모의 최대 나이는 64세였다. 그들은 포경수술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관해 질문 받았다. 이 정보에서 우리는 포경수술을 한 나이와 함께 현재 포경수술 비율을 얻었다. 포경수술을 받거나 받지 않은 개개인과 그들의 부모들에 대하여, 우리는 수술을 한 나이와 그들이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받았는지 아닌지,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비자발적(장단점과 같은)으로 수술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되었고, 응답률은 70%였다. 모든 참석자들(또는 그들의 부모)은 조사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었고, 사전동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의 중앙대의 기관감사위원회에서 윤리적 승인을 얻었다. 자료는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통계적 유의도는 $p < 0.05$ 에 맞췄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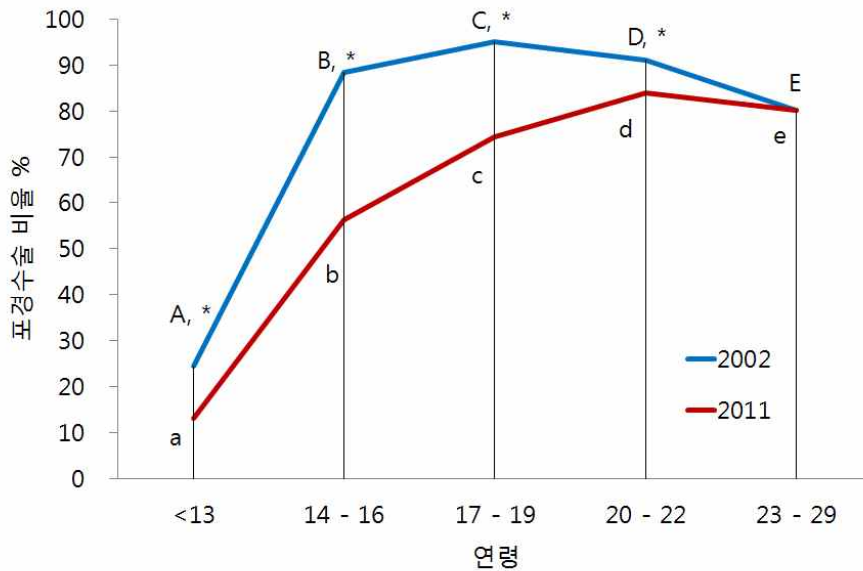


그림 1. 2011년과 2002년의 연령별 포경수술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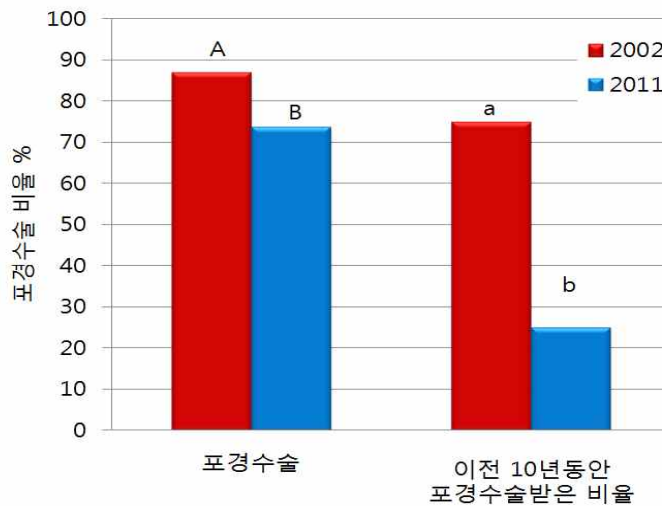


그림 2. 포경수술 비율과 지난 10년 동안 포경수술을 받은 비율

그림1은 다섯 가지 나이 그룹의 현재 포경수술 비율을 보여준다. 13; 14-16; 17-19; 20-22; 23-29세(실선)의 나이그룹에서 각각 13.1, 56.4, 74.4, 83.9, 80.1%의 비율을 가진다. 이 비율들은 비교적 높지만, 우리의 2002년 연구(파란선)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낮다. 비교를 위해서, 현재 연구와 선행 연구 [2]에서 자료를 결합한, 20살의 포경수술 비율은 그림2에 들어갔다. 현재 75.1% 비율은 2002년에 발견된 92.0% 값보다 약 17 %정도 낮다. 포경수술 비율의 가장 가파른 증가는 198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서 일어났고, 그 후에 상당한 감소가 2010년대에 보여진다. (그림2) 현재 14-29세의 한국 남성의 2000 한국 인구조사의 포경수술 비율의 표준 인구는 75.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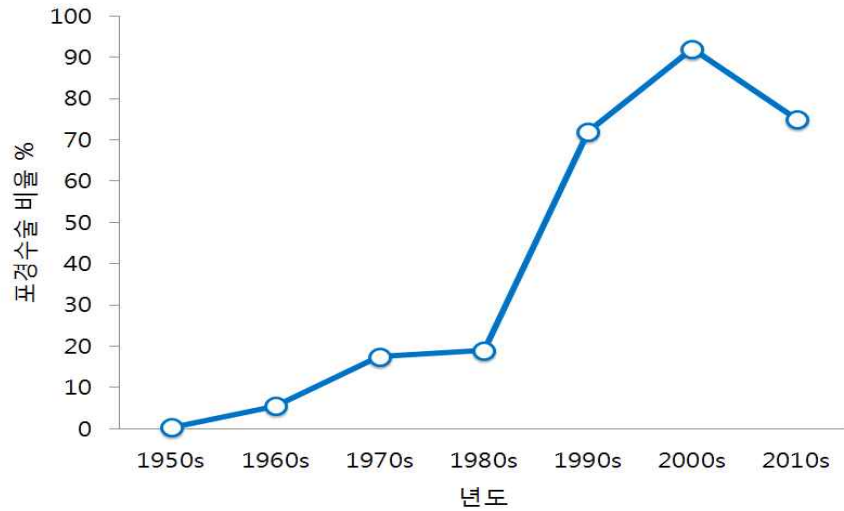


그림 3. 지난 60여년 동안 20대 포경수술 비율의 역사적 조명

그림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2002년 선행 연구에서 같은 나이 그룹의 표준 연령 비율은 86.3%였다. 현재 포경수술을 받은 남자 중에서 지난 십년간 포경수술 받은 비율은 25.2%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현재 대부분의 포경을 한 남자들이 2002년 이전에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준다. 다른 말로 현재 포경의 많은 비율이 2002년 이전 수년 전부터 이어진 것이다. 현재 상황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2002년 진행된 연구에서 다수의 포경수술한 남자들(75.7%)이 그 해 이전 십년간에 수술을 받았고, 이는 전체적인 한국에서의 포경수술 움직임이 지금 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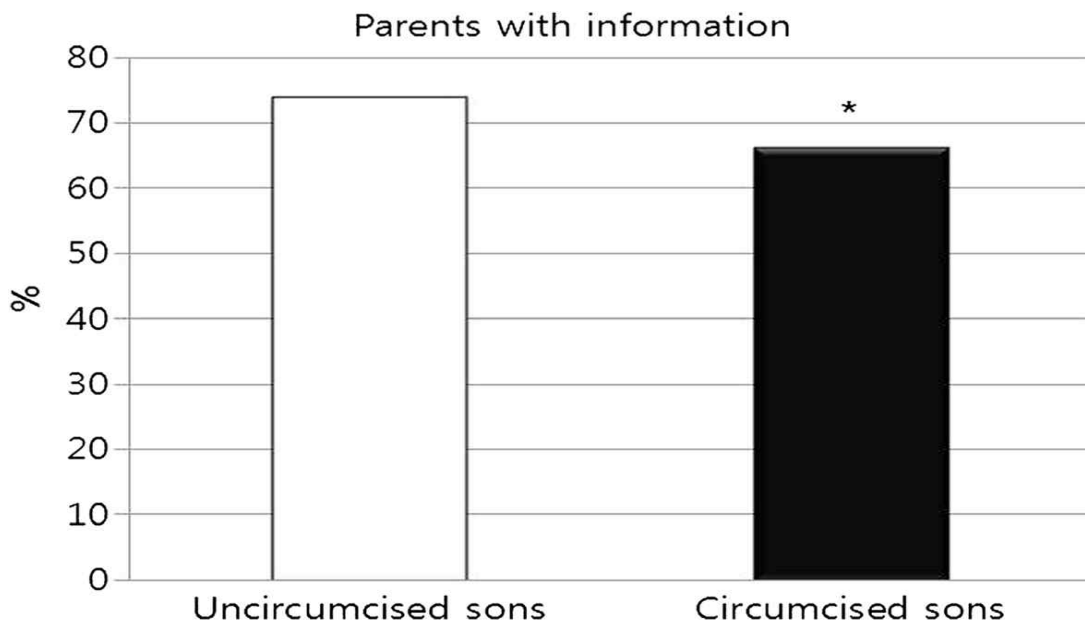


그림 4. 포경수술을 안 받은 개인의 부모가 정보를 접했을 확률은 수술한 사람에 비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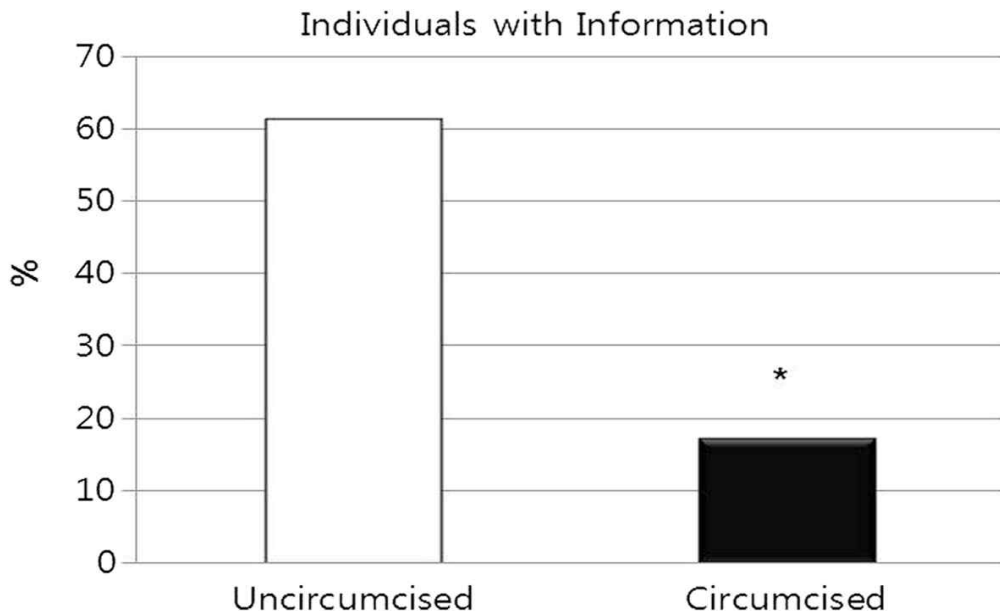


그림 5. 포경수술을 안 받은 개인이 정보를 접했을 확률은 수술한 사람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음.

따라서 포경수술 비율 급감의 주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포경수술 상태와 포경수술에 대한 정보 노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4에서 보여지듯이, 포경수술 상태와 부모가 포경수술에 대한 장단점을 잘 아는지 정도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남자 아이들의 부모가 수술 받은 아이들의 부모들보다 각각 74.0% 대 66.3%로 더 정보를 지니고 있었다. 지식에 관한 이 경향은 남자 아이들 그들 자체에서 더욱 많이 뚜렷하다.(그림 5); 정보를 지닌 남자 아이들이 포경수술을 안받을 확률이 훨씬 더 큰 것이다. 정보와 포경수술 상태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미디어 유형이 포경수술에 관한 정보의 중요한 출처였는지 분석하였다. 그림 6은 부모들에 의해 사용된 정보 출처를 보여준다.: 인터넷이 가장 일반적인 출처이고, 다음으로 신문, 책, 강연과 텔레비전에 비교적 고르게 이어진다. 흥미롭게도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남자 아이들은 그들의 정보를 압도적으로 인터넷에서 얻은 것에 반해, 포경수술을 받은 인구는 신문에 정보를 의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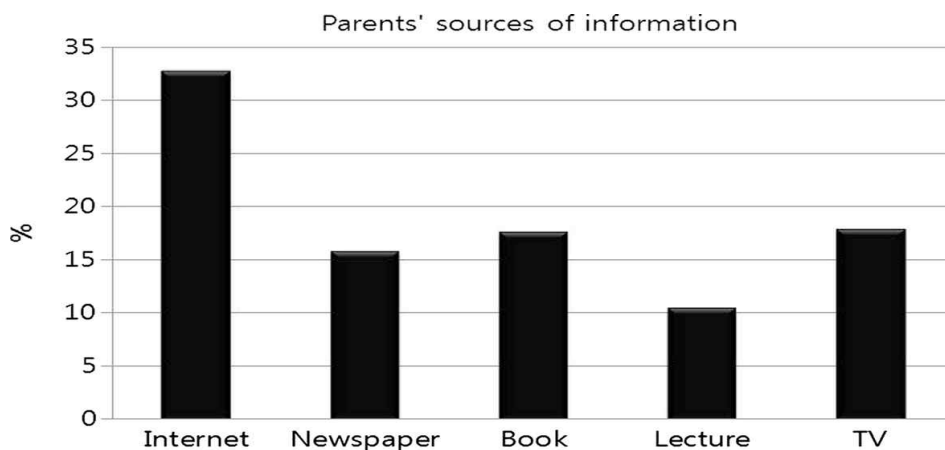


그림 6. 부모를 위한 포경수술 정보 출처

논의

영어권 국가에서 포경수술 비율은 감소하고 있거나, 이미 꽤 낮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5.6%, 뉴질랜드에서는 2% 미만이다. [8,9]. 미국에서조차 신생아 포경수술 비율의 꾸준한 감소가 보도되어 왔다 [6]. 놀랍게도 우리는 포경수술 비율이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1980-2000년 사이 기간의 빠른 증가와 최근의 감소 모두 미국 역사에서 그 상대하는 기간과 비교할 때 더욱 급격하다. 즉 우리나라는 포경수술이 비율이 올라가는 것도 빠르고 감소하는 것도 빠른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현재 포경 수술 비율인 75.8% (14-29세)는 2002년의 관측치인 86.3% 보다 11.1% 낮다. 한국이 십년 안에 보여준 10.5%의 감소는 Zhang 등이 발표한 연구에서 지난 십년 간 약 5%의 감소를 보인다는 미국 신생아 포경수술 감소비율보다 약 2배 더 빠르다[6]. 지난 십년 간 포경 수술 받은 남자 아이들의 비율은 단지 25.2%로 이는 2002년에 보고된 75.7%에 비해 극적인 감소이다. 이 결과는 다수의 현재 포경수술 받은 남자들이 2002년 이전에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준다.

조사에 질문표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포경수술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 십년 사이 넓은 범위의 정보를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흥미롭다. 하지만 막대한 다수의 정보가 포경수술의 이로움과 모든 연령대 남자들을 위한 활동적인 수술 홍보와 관련해 구해져 왔고, 여전히 그러하다. 지난 십년 간 관측해 나타난 변화는 1999년 이전에는 100%의 정보가 포경수술에 찬성이었고, 이는 포경수술을 위한 최적의 나이, 포경수술을 통해 얻어지는 성기능 강화, 위생성과 의료적 이익이 높아진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1999년 이후에서야 몇몇 포경수술에 반대하는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포경수술의 역사, 포경수술이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에 배치되는 특성, 그리고 미국군에 의한 도입 등으로 포경수술에 관하여 수술 결정을 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쳐온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솔깃한 일이다. 가장 대중적인 한국 검색 엔진 naver (<http://naver.com>)로 검색하면 오직 3%의 한국 인터넷 사이트가 무분별한 포경수술에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97%는 찬성한다. (작가들에 의해 검색됨); 그렇지만 이러한 소수의 사이트가 정보를 구하는 개인들에게 포경수술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신문 기사[10]가 포경수술을 홍보하는데 덜 극단적이라는 것은 언급되어야 한다. 오직 기사의 80%만이 포경수술의 이로움에 대해 홍보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포경수술에 대해 다양한 국제적 태도의 관점에서 한국의 포경수술 감소 비율의 영향을 주목한다. 최근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대량 포경수술을 통한 포경수술 비율의 증가는 HIV 감염과 포경수술을 한 부족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포경수술의 가상되는 이로움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HIV와 포경수술 사이에 주장된 상관관계를 포함하여)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포경수술 비율은 감소되어 오고 있다. 우간다, 케냐, 보츠와나, 모잠비크, 스와질란드, 잠비아, 짐바브웨 같은 나라[11]에서의 현재 포경수술의 급속한 증가는 1960-1990년 사이에 한국에서의 상황과 유사하다[1,2]. 흥미롭게도 전통적 통과의례로서 포경수술을 하는 국가인 탄자니아는 의학적인 포경으로 그들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다. 르완다에서는 의학적이든지, 전통적이든지 모두 근본적으로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 나라인데, 현재는 의학적인 포경수술이 활기차게 추구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르완다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50년 전의 한국 상황에 밀접하게 닮아있다.

한국 포경수술의 시작은 일제강점의 종료와 미군정의 시작과 한국 전쟁이 일어난 1945-1950년 사이에서 정확히 찾아진다. 1960-2000년 사이 포경수술 치료가 일어났고, 포경수술 비율은 10%에서 90%로 급증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는 HIV 확산을 막기 위함이지만, 한국에서

는 포경수술을 지원하는 큰 운동은 자궁암과 HPV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게다가, 1960-2000년까지는 한국인들은 포경수술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보만을 구할 수 있었다.; 이는 역시 많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비슷하게 보여진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에서의 개선된 정보 자원은 대량의 포경수술을 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초기의 급속한 포경수술 증가는, 보다 나아진 금전적인 자원과 삶의 기준으로 인해 생긴 몸을 보존하려는 인간 성향에 의해 결국은 추월당할지도 모른다; 즉 아프리카에서도 포경수술 비율이 다시 줄어들 개연성은 크다.

남아프리카의 상황은 재미있다. 왜냐하면 남아프리카는 가장 높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으로부터 대량의 포경수술이 비판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12].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그들이 한번도 전체적인 포경수술 비율이 미국에서만 큼 높지 않았음에도 포경수술이 초기의 증가 이후에 급속한 감소를 보인다.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남아프리카가 다른 영어권 국가처럼 되어 이 영어권 국가들의 추세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HIV 방지 이익에 대한 욕구로 남아프리카의 포경수술 비율이 올라갈 것이냐이다.

현 연구에 대한 한 가지 제한점은 인터넷 사이트와 이메일에서 조사한 것에서 내재하는 단면의 구조와 비확률적 표본추출이다. 우리는 2002년 연구에서 비슷하게 인터넷과 이메일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보다 넓은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으로 본 연구는 2002년판 연구보다 보다 일반적인 단면의 표본 검출을 나타낼지도 모른다. 분명히, 일반적인 인구와 확률적인 표본추출 방법을 포함하는 더 나아간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우리는 지난 십년 간 한국 남성 포경수술이 가파른 감소를 겪어왔다는 것을 밝혀냈다. 10년간 10.5%의 감소는 미국에서의 비율보다 약 두 배 더 가파르다. 이 감소에 대한 원인은 포경수술에 대한 새롭고 풍부하게 얻기 쉬운 정보와 특히 수술이 꼭 의무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 있다. 한국의 상황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포경수술 현실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